건강 칼럼

코 재수술, 코라인 정확히 분석할 전문의 찾는 게 중요

이 윤 환

탑페이스성형외과 원장

코는 얼굴 중앙에 위치한 신체 부위인 만큼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얼굴 부위 중 입체적인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코의 높이, 넓이에 자그마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코성형 수요가 증가한 만큼 코재수술 사례 역시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코성형 시 환자 개개인의 코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심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 수술이 진행해야 한다. 코재수술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벌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코재수술 난이도가 1차 수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코성형은 코재수술을 포함해서 콧대부터 코끝까지 고려한 엣지코성형, 낮은 코를 오뚝하게 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콧대성형, 뭉툭한 코 끝을 교정하는 코끝성형, 둥글고 뭉툭한 코를 슬림하고 세련되게 해주는 콧볼축소술 등이 있다.

엣지코성형은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코 모양보다는 개인별 이미지와 얼굴특성에 맞는 콧대코끝을 찾아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코 모양을 완성하는 수술이다. 콧대와 코끝의 각도를 분석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과 입체감은 물론 콧대부터 코끝까지 엣지있는 코 라인을 추구한다.

낮은 코를 높여주기 위한 수술인 콧대성형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코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수술이다. 동양인은 대체로 콧대가 낮기 때문에 밋밋하고 입체감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형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코 높이와 라인을 찾아 주는 것은 물론, 얼굴의 중심인 코를 세워 균형 있고 입체감 있는 얼굴로 만들 수 있다.

코끝은 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부위인데, 콧대가 높더라도 코끝이 낮고 뭉툭하면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없다. 코끝수술은 코끝이 오뚝해지면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고 얼굴이 나이보다 어려 보일 수 있기에 시행되는 성형이다. 수술 시 콧망울 연골의 리모델링과 자가 연골을 사용하며, 개인의 코 모양에 따라 반버선, 직반버선, 직선 코 3가지로 코끝수술을 진행한다.

콧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콧구멍이 더 커 보이고 코가 더 낮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콧볼축소술을 통해 콧볼의 넓이를 줄여줌으로써 얼굴의 균형에 맞는 코 모양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다. 코 모양의 크기를 줄여 콧구멍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콧볼과 동시에 코끝, 콧대까지 개선하면 슬림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

병원을 알아보는 경우 후기를 통해 코수술 잘하는 병원인지, 코성형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붓기관리와 같은 수술 후 관리를 해주는 곳인지 비교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해부학적 구조를 비롯해 피부 타입, 질환 여부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코라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의를 통해 진행해야 코재수술이나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코로나19 종식되길" 기도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왼쪽)이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 마르첼로 알 코르소 성당을 방문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시카고 공항에 몰린 귀국 미국인들

15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세관 통과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 설

소상공인 살리기 추경 4300억

전북도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총 43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격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나선 것이다. 그같은 움직임은 도의회에서 긴급 추경을 통과해 마련한 것이라 신뢰가 간다. 코로나 퇴치에 발 맞추어 영세 기업들 쪽에도 눈길을 준 것이라고 평가가 된다.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계산해 각 1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는데 비록 그게 적은 액수라도 용기를 내게 하는 동기가 되리라는 믿음이다.

본보는 그동안 영세 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드물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 연장 선에서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보여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영세기업도 잘 나가야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 아니냐는 말도 했었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천행보를 보여야 한다고도 촉구했었다.

그런데 지금 전북도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다.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일 터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언제고 지원이라는 것이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전북도의 그같은 지원은 비유컨대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야겠다. 지난 십 수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을 터이다.

군산 경제가 지난 수년 간 몰락 상태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이번 영세 기업 지원이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이다.

코로나 침투 계속 경계해야

코로나와 관련해 전북 지역이 평온하다.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대구 경북 처럼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서울 경기와 인천 쪽에서 보고되는 코로나 확산 뉴스를 보면 두려운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에 이어 대구 콜센터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에서 40여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었다.

정말이지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도는 청정 환경 지키기를 계속 강고히 해야겠다. 특히 신천지 측을 향해 강고히 해야겠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할 사람들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8천명을 훌쩍 넘고 사망자도 76명이나 되는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두려울 뿐이다.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세라지만 그래도 하룻밤 사이 여러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환자가 새로 불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안심해서는 안될 때임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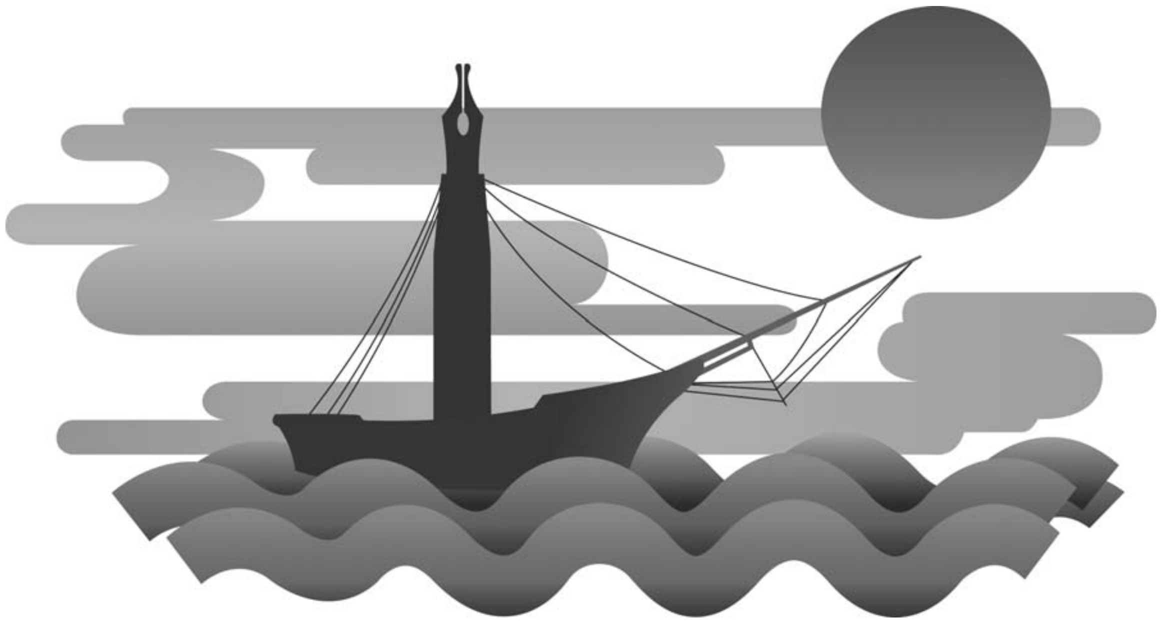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대형교회들에게 일요일예배와 다른 종교 집회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소규모 교회들도 그에 따라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의 그러한 요구와 교회들의 순종적인 협조 때문에 우리 전북이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안전한 지역이 되고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몇몇 몰염치한 교회들에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19 확산은 거리와 상관이 없다.중국의 우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의 이란과 유럽의 이탈리아가 그 본보기이다. 두 나라는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여러나라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관계 당국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 연락두절 신천지 신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 색원해야겠다.

우리 전북 지역은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